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왜 <중등 필독 신문>인가.



“나도 네이버 뉴스 매일 본다구요.”

Q. 신문 좀 보고 문해력을 키우라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답답해요. 나도 컴퓨터로 게임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관심 있는 분야의 뉴스는 매일 찾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뉴스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신문을 따로, 그것도 책으로 봐야 해요?

A. 그래요. 10대도 뉴스 많이 봅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뉴스가 어떤 뉴스였나요? 내가 오늘 봤던 뉴스 제목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연예인이나 아이돌, 스포츠 관련 기사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예를 들어 ‘푸바오 유력 신랑감은? 프랑스 출신 거지왕자’라는 뉴스를 봤다고 쳐요. 제목만으로 궁금하죠. 내가 사랑하는 푸바오에게 거지왕자라니. 하지만 그 내용은 푸바오가 검은 털 때문에 거지왕자로 불리는 프랑스의 위안멍 판다와 교배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뉴스를 볼 때면 자극적인 제목에 먼저 눈이 갑니다. 내용과 전혀 판판인 엉터리 기사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어그로성’ 기사는 뉴스를 봤다는 착각을 만들죠. 많이 읽지는 않아도 좋은 기사를 읽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유익한 기사를 고를 힘이 생깁니다.

<중등 필독 신문> 도서 상세보기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왜 <중등 필독 신문>인가.

Q. 좋은 기사를 선별한 책이 <중등 필독 신문>이라는 거죠. 목차를 보니 교육이나 문화, 사회까지는 솔깃한 기사가 있긴 해요. 하지만 과학, 환경, 경제까지? 제목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뇌가 멈추는 것 같아요. 저런 기사를 어떻게 읽으라는 거죠?

A. 관심 가는 기사가 있다는 건 시작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관심 가는 주제의 기사부터 가볍게 시작하세요.

만약 조별 과제를 하다가 조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조별 과제 또 나만 진심이었지'라는 기사를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조별 과제가 나만 힘든 게 아니란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낀 경험을 정리하면 다음 조별 과제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기사를 읽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면 책이 재미있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관심이 가는 주제를 저절로 읽는 거죠. 만약 책을 다 읽고 적용했다면 잠시 접어둬도 좋습니다. 그러다 비슷한 주제를 접하면 다시 책을 펼치고 주제와 생각하는 법, 질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루하지 않게 책을 활용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Q. 챕터마다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질문을 보면 아무 대답도 떠오르지 않아요. 생각하기 귀찮은데 왜 어려운 걸 시켜요. 이미 할 일이 많아 머리가 복잡한데요!

A. 질문이 어색하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춘기가 되면 나 자신에 대해 수많은 의문이 생기니까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문제를 마주치면 뭐라고 답할 건가요? 그때도 생각하기 귀찮다고 대답을 미룰 수 있을까요? 그래요, 질문이 두려울 수 있죠. 하지만 비판적인 생각은 내 삶의 질문에 대답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방법을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이 책의 모든 챕터에 생각하는 힘을 기를 방법을 준비했어요. 그러니 차근차근 그 방법을 익히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아마 질문이 두려운 마음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또 내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면 결국 이런 삶의 질문에 대답할 줄 알아야 하죠. 믿고 따라오세요!

<중등 필독 신문> 도서 상세보기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why로 알아보는 진짜 나의 속마음 >

* 기사가 어려워요.

- why?**
- 관심 없는 내용이라서
 - 시간이 없어요
 -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어요.
 -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 질문을 못하겠어요.

- why?**
- 검색하면 쉽게 답이 나오니까.
 - 무식한 게 들길까봐
 - 어떻게 질문할지 몰라서
 - 내용에 집중이 잘 안 돼서 끝까지 몰입하기 힘들

* 비판적 사고력 왜 필요하죠?

- why?**
-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배웁니다.
 -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게 해줘요
 - 논리적 추론과정을 배웁니다.
 -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줘요.

비판적 사고력은 주어진 정보나 주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증거에 기반해서 사실을 판단하고 건설적 비판으로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워크북 활용 Tip!

1. 놀이는 내가 주도합니다.

내가 워크북 놀이의 주체가 됩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나의 리드를 따라오게 하세요!

2. 놀이에 정답은 없습니다.

내 놀이에 정답은 없습니다. 틀려도 좋으니 재미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3. 질문은 열려 있어야 해요.

내 정답을 정해놓고 질문하지 마세요. 어떤 답이든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 되지요.

4. 책을 활용하면 놀이 업그레이드

<중등 필독 신문>의 기사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비판적 사고력 UP!' 과 같은 질문에 충실히 대답하고 놀이를 진행해 보세요. 지식도, 생각의 힘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중등 필독 신문> 도서 상세보기

이 어려운 걸
놀이로 배운다고?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신문놀이로 사고력 UP!

신문아, 놀자 1단계

1단계에서는 신문이라는 매체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신문은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 편견을 깨주기 위해서 신문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로 시작하는 겁니다.

교복, 꼭 입어야 하는 걸까?

교복을 생활복이나 체육복으로 대체하면 학생들의 다양성이 존중된다. 자신의 스타일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옷을 골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편안하게 옷을 입으면 학생들의 활동성도 높아진다.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은 무조건 체육복을 입고 가는 학교가 많아 그동안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느라 발생했던 불편도 많이 줄었다. 또한 교복은 특정 브랜드로 고정되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생활복으로 대체하면 가격경쟁이나 다양한 쇼핑 옵션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 간 동질감을 만들어 주던 교복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학교의 일관성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옷을 통한 외모 표현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불평등이나 부조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또 단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 <중등 필독 신문> 16p.

하나, 단어 빨리 찾기 게임

아래에서 제시하는 단어를 빨리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어려운 한자어를 찾으며 모르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보면 어휘력을 높일수 있습니다.

쇼핑옵션 동질감 활동성 다양성 대체 정체성 가격경쟁 일관성 부조화 특정

나 () 개 엄마 () 개 아빠 () 개 동생 () 개

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찾기

위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가장 빨리 찾는 사람이 승리!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며 기사의 핵심 내용을 알아냅니다.

() - 개 () - 개 () - 개

셋, 끝말잇기 게임

위 기사에 나오는 단어를 연결해서 끝말잇기 놀이를 해 보세요.

끝말잇기 놀이는 어휘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놀이

학교 - 교복 -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신문놀이로 사고력 UP!

게임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요?

무조건 게임을 억제하기보다는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건강한 게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게임을 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학습성과를 게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다. 게임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전략을 가르치고, 안전하고 건강한 게임 사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게임시간 선택제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여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학습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보호자의 개입 없이도 청소년들이 게임을 조절해 나갈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중등 필독 신문> 20p.

내가 즐겨 하는 게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면 게임의 과정과 게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 기사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게임에 대한 기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를 골라 게임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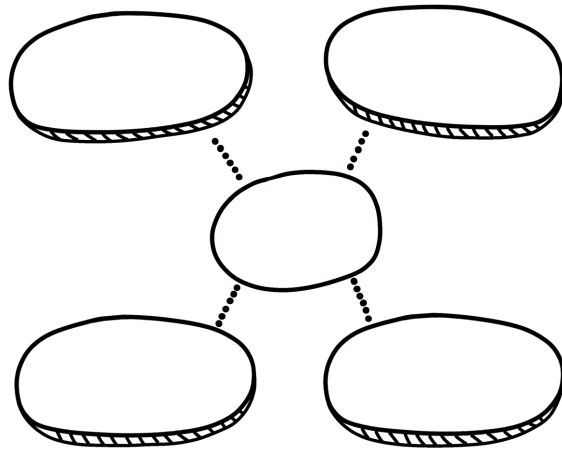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신문놀이로 사고력 UP!

둘, 주요 단어 마인드 맵

내가 즐겨 하는 게임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세요.



셋, 기사 내용 요약하기

기사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 적어보세요.

중요한 단어를 찾고 내용을 연결해서 요약해보는 연습을 기사문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핵심 키입니다.

중요한 단어를 연결해 위의 내용을 요약하는 문장으로 만들어보세요.

()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신문놀이로 사고력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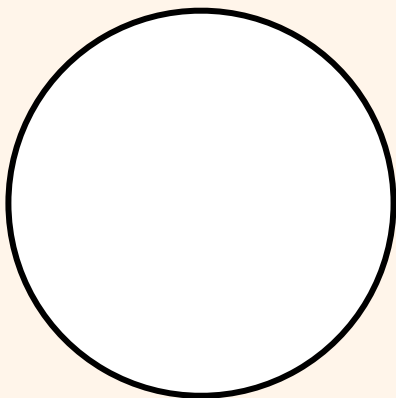
내 꿈은 아이들

희망직업을 선택한 아이들 중에는 어떤 직업이 가장 많았을까?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1위는 운동선수로 나타났다. 운동선수는 2019년부터 초등학생 희망직업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의사, 3위는 교사였다. 4위가 창작가였고 요리사와 가수, 경찰관과 법률 전문가가 순위를 이었다. 중학생의 희망직업 1위는 교사였다. 의사와 운동선수, 경찰관과 컴퓨터공학자, 군인, 최고경영자와 배우나 모델, 요리사와 시각디자이너 순으로 희망직업이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1위가 교사, 2위가 간호사였다.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이나 컴퓨터공학자, 의사, 경찰관, 뷰티디자이너,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나 최고경영자도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 <중등 필독 신문> 6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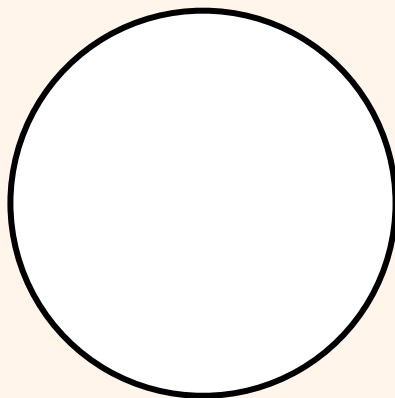
하나, 기사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희망 직업을 초·중·고로 나누어 원그래프로 표현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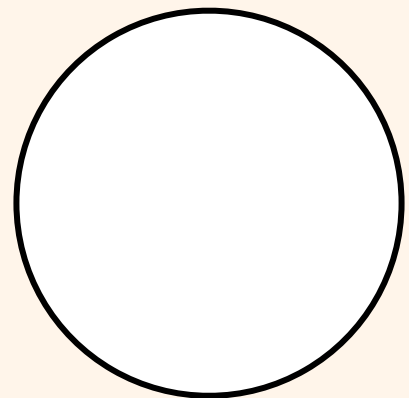
기사의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하는 연습이 됩니다.



초등 희망 직업



중등 희망 직업



고등 희망 직업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나요?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신문놀이로 사고력 UP!

둘, 내가 갖고 싶은 희망직업 홍보하기

나의 희망 직업과 만들고 싶은 회사, 메이커의 이름을 적고, 이를 홍보하는 광고문구를 만들어보세요.

- 희망직업
- 내가 만들 메이커 이름
- 나의 메이커 홍보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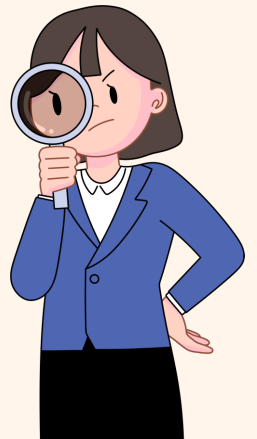
희망 직업을 생각해 보고 내 미래 모습을 그려봅니다.
내가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만들 회사 이름과 메이커,
메이커 외 광고 문구를 통해 나의 꿈을 구체화해 볼 수 있습니다.
기사문의 내용을 내 삶과 연결해 보는 놀이입니다.

셋, 기사문의 원인 추측하기

초중고생 희망 직업 변화의 원인 찾기!

-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은 왜?
- 중학생의 희망 직업은 왜?
-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은 왜?

현상의 원인을 따져보면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신문놀이로 사고력 UP!

신문아, 놀자 2단계

2단계에서는 신문 기사의 이해를 넘어서 사회 현상과 나의 생활을 연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사 내용을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나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신문이 쉽게 느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부캐 전성시대

부캐란 '부 캐릭터'의 줄임말이다. 부캐는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원래 키우던 본 캐릭터나 본래 사용하던 계정 외에 새롭게 만든 존재였다. 예능프로그램에서 개그맨이 가수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부캐'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실생활에 퍼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창작 활동에서 부캐는 어떻게 쓰였을까? 웹툰이나 만화에는 주인공이나 주요 캐릭터의 부캐가 존재한다. 주 캐릭터와 다른 모습이나 역할을 하며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소설에서는 부 캐릭터를 통해 주 캐릭터의 심리나 관계, 역할을 다루기도 한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캐릭터의 과거나 다른 세계에 온 캐릭터로 나타난다. 게임에서는 주인공의 부캐가 주요 플레이어 캐릭터로 등장한다. 부캐는 본캐와는 다른 능력이나 전문성을 가진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용자가 부캐를 만든다. 프로필 사진이나 닉네임, 개성적인 특징을 가진 가상의 캐릭터로 나타난다. 부캐를 통해 본캐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 <중등 필독 신문> 68p.

하나, 몸으로 말해요.

여러 가지 부캐를 행동으로만 표현하고 맞추는 게임을 해보세요.

예) 기자, 아이돌, 아나운서, 판사, 요리사, 프로그래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개념을 설명하면 개념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 기사문 현실화 하기

나의 부캐를 만들어보세요.

- 캐릭터명:
- 하는 일:
- 외모:
- 직업:
- 성격 :
- 특기:
- 취미: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신문놀이로 사고력 UP!

부캐를 만든 이유와 부캐를 통해 실현하고 싶은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설명하세요.

- 부캐를 만든 이유
- 부캐를 통해 보완하고 싶은 점

셋, 기사문을 토대로 이야기 만들기

나의 부캐가 주인공인 웹소설을 써 보세요.
이야기에선 어떤 캐릭터라도 가능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보세요.

부캐 전성시대가 오는 이유를 내 부캐와 연결해서 생각해봅니다.
기사문이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을 써보는 것은 현상을 이해하며
자신의 상상력을 길러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신문놀이로 사고력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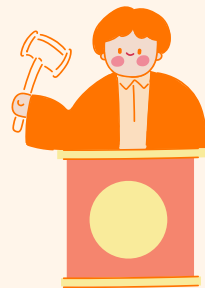
AI 판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2023년 5월 일본 도쿄대학 AI 법정에서 모의재판이 열렸다. 챗GPT가 판사를 맡고 변호사, 검사, 피고인은 학생들이 맡았다. 전 여자 친구를 성희롱한 남성이 살해됐다는 가상 사건이 상정되었다. AI 판사는 모의법정 뒤편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등장했다. 기계로 재생되는 음성을 통해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판사의 선고가 나오기 직전 방청객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AI 판사는 모의재판에서 인간의 판단과 비슷한 결론을 내면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도 밝혔다. 방청객은 인간 판사에 비해 다양한 질문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증인의 외형에 영향받지 않고 정확한 판결을 내린 점은 유익했다고 밝혔다. 머지않아 실제 등장할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 <중등 필독 신문> 160p.

하나, 육하원칙 찾기

기사문에서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적어보세요.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기사문에서 육하원칙을 찾아 기사를 정리하는 것은 기사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육하원칙을 연결해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세요.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신문놀이로 사고력 UP!

둘, 기사문의 내용을 광고로 만들기

AI 판사의 판결을 광고하는 스크립트를 짜보세요.

광고내용을 기사로 만들어 기사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표	
대상	
메세지	
감정	
각인 요소	

셋, 새로운 밈 만들기

AI 판사를 홍보하는 챌린지를 계획해보세요.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보며 기사의 내용을 확장해 볼 수 있는 경험은 세상을 앞서나가는 리더로서의 자리를 미리 연습해보는 기회가 됩니다.

챌린지 종류	
내용	
홍보 방법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신문놀이로 사고력 UP!

()

웹 3.0은 인터넷이 더욱 지능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것이다. 더 나은 검색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분산 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진보의 기술로 맞춤형 정보와 데이터 소유를 개인화하는 3세대 인터넷이다. 기존의 인터넷은 제공자의 정보를 확인만 할 수 있는 읽기 중심의 초기 1.0 버전이었다. 그 후 읽기 중심에서 쓰기를 더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2.0 버전으로 발전했다. 스마트폰 사용의 보급화가 인터넷 활성화에 주요 역할을 하며 소셜 네트워크나 게임의 보급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손쉽게 접하게 되었고 나의 정보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 공유는 쉽지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만 가능했다. 플랫폼에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곳을 통해서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불만이 생기면서 () - <중등 필독 신문> 176p.

하나, 기사 헤드라인 만들기

기사문을 읽고 기사의 제목을 만들어보세요.

가족과 함께 만들어 서로의 헤드라인을 비교하고 가장 좋은 제목을 선정해보세요.

- 나의 기사 제목:
- ()의 기사 제목:
- ()의 기사 제목:
- ()의 기사 제목:

타이틀은 기사의 전반을 이해할 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타이틀을 만들어보세요!

우리가 선택한 기사 제목은 ()

타이틀 선정 이유는 ()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신문놀이로 사고력 UP!



신문아, 놀자 3단계

3단계에서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새롭게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사의 모든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문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식량과 물 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지구의 식량문제는 앞으로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세계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 수요도 늘어났다. 기후변화와 가뭄, 홍수, 극한 기온 등의 자연재해로 식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

- <중등 필독 신문> 226p.

하나, 기사문 완성하기

기사의 제목에 맞춰,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의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보세요.

기사의 주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사문 나머지를 작성하세요.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신문놀이로 사고력 UP!

둘, 기사문을 바탕으로 홍보지 만들기

지구의 식량과 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약으로 삼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홍보지를 만들어보세요.

글쓰기는 비판적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가장 좋은 연습법입니다.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 이름	후보 이름
공약	1.
	2.
	3.

셋, 기사 내용으로 찬반토론지 만들기

지구의 식량과 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찬반 토론지를 완성해보세요.

- 식량, 물 문제 해결 방법:

찬성 주장과 근거

반대 주장과 근거

찬성 주장과 근거

반대 주장과 근거

선거공약을 만들어보면 해결책을 가독성 있으면서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신문놀이로 사고력 UP!

대한민국의 5대 미래 전략 산업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2021년 발표한 한국의 5대 미래전략사업으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전기차),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가 있다. 반도체 산업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반도체는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발전을 이끌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에서 전기차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는 오염물질의 배출 없이 동작되는 차량이다. 이는 대기 오염 개선 및 기후 변화 대응에 도움이 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술이다.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한다. 텔레비전, 모니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디스플레이 기술이 사용되며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의료, 식품, 환경, 농업과 미생물 등 생명과학 분야에서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이차전지는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로 알려져 있다.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다. 이러한 배터리는 전자제품과 모바일 기기, 전동 자전거,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 <중등 필독 신문> 287~289p.

하나, 창의적 사고력 발산하기

대한민국의 5대 미래전략사업을 주제로 패션쇼를 기획해보세요.

미래전략사업과 패션쇼라니.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난감하지요.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분야를 연결 지을 때 창의성이 발휘된답니다.

개요	
주제	
내용	
구성	
기대효과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신문놀이로 사고력 UP!

둘, 관련기사 검색하기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에서 대한민국 5대 미래 전략 산업을 검색하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이있게 접근해보세요.

한 가지 기사는 평형된 시각을 갖게 합니다.
관련된 기사나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함께 접할 때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제	
관련 기사 내용	

셋, 기사문 내용 브리핑하기

기사를 나만의 시각으로 브리핑하며 마무리 멘트를 작성해보세요.

기사 브리핑 내용	
마무리 멘트	

모든 비판적 사고의 마무리는 내 생각과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기사문을 읽었으면 나만의 언어로 소화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을 이해하는 메타인지력을 키우고
비판적 사고력의 끝판왕이 되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호기심 가득 뉴스 모음

사전투표 달라진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 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와 개표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2024년 총선부터 달라지는 선거 제도는 바로 사전 투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전 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미리 선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전 투표는 투표용지를 선거 사무원들이 수거하면서 바꾸거나 쇼핑백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조작과 투표지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섞입니다. 본인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실제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를 한 것입니다. 이에 사전 투표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관 장소의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투표함의 모습을 24시간 공개합니다. 중복 투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 후 30일까지 보관합니다. 기계가 아닌 개표원이 직접 개표하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개표 결과는 늦어지더라도 정확성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근 선거 때마다 사전 투표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비용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방법을 통해 좀 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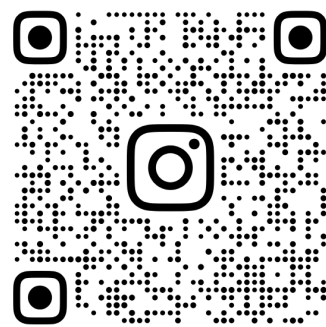


이렇게 대화해 봐요!

1. 사전투표의 의미와 방법
2.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문제점
3. 사전투표 개선방법
4.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 제안
5. 선거를 공정하기 치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면?

QR 코드를 통해

기사 카드뉴스도 확인해보세요~



QR 코드를 찍거나
클릭하면 이동해요!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호기심 가득 뉴스 모음

10대 카톡 No! DM으로 소통해요

10대가 인스타그램 DM을 선호하면서 카카오톡을 떠나고 있다는데 진짜일까?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톡 월간 이용자 수는 4,497만 명이었다. 전월 대비 22만 명이 감소했다. 카카오톡 사용자가 4,500만 명을 밑돈 것은 22개월 만이다. 10대의 이탈이 카카오톡 이용 감소의 설득력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0대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선호해 카카오톡을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 언론진흥재단 통계를 보면,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톡으로 꼽혔다. 2022년 기준 이용률은 95.2%,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DM은 52.3%였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제치고 인스타그램 DM의 사용량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학급 단체 공지나 가족 단체 대화용도로는 아직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게 보통이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주로 인스타그램 DM을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뿐, 10대의 카카오톡 이탈률이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카카오톡 이탈률이 늘어나고 있을까? 원인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과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다. 유튜브나 구글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국내 양대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정부와 국회의 규제로 해외 플랫폼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정치적 논란이나 내수 사업 위주로 진행하면서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 플랫폼인 카카오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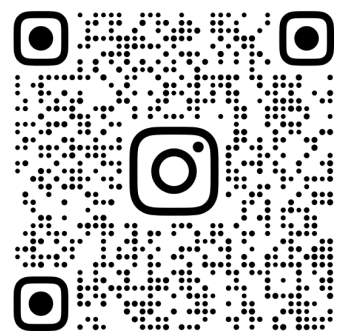


이렇게 대화해 봐요!

1.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과 이유는?
2. 각종 플랫폼의 장점과 단점
3. 카카오톡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해보자
4. 국내와 해외 플랫폼의 차이는 무엇일까?
5. 플랫폼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QR 코드를 통해

기사 카드뉴스도 확인해보세요~



QR 코드를 찍거나
클릭하면 이동해요!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호기심 가득 뉴스 모음

AI 교과서 도입 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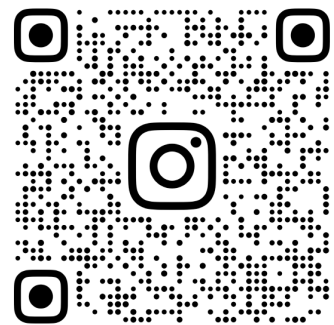
2025년 1학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초중고 도입을 앞두고 교사연수 준비가 한창이다. 교사연수 비용으로 3,800억 원을 책정해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연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현장 도입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일선 교사들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에듀테크 프로그램과 교단 디지털화에 앞장서는 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기 로그인부터 자판 타이핑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호소했다. 기기가 고장 나면 며칠 동안 운영에 어려움도 생긴다. AI 기기가 개별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맞춤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구현되어야 하는 실정이지만 그런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AI에게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받고 어쩌면 감시받게 될 아이들이 행복할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는 교사도 있었다. 최소한 한 학기 시범운영이 필요한데 진행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도입도 급하게 시작된다며 개인 정보 문제를 점검할 시간조차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내년 1학기에 적용되는데 오는 11월에야 검정을 마치고 완성본도 그때 공개될 것으로 보여 이런 우려의 소리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무엇을 해야할지 구체적인 모습도 정해지지 않았다. 과정 중심 학습이 중요한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AI 기술로 학생수준파악 및 평가와 피드백처럼 양적인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도 분석했다. 맞춤형, 개별화를 지향하지만 소득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를 가능하게 할지도 의문이라고 한다. 이런 다양한 교사의 우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도입 전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대화해 봐요!

1.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장단점은?
2. 나의 AI 교과서 활용 역량은 얼마나 되고 어떤 능력을 보완해야 할까?
3. 맞춤형, 개별화 교육의 장단점은?
4.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을 살려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QR 코드를 통해
기사 카드뉴스도 확인해보세요~



QR 코드를 찍거나
클릭하면 이동해요!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호기심 가득 뉴스 모음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재래시장 영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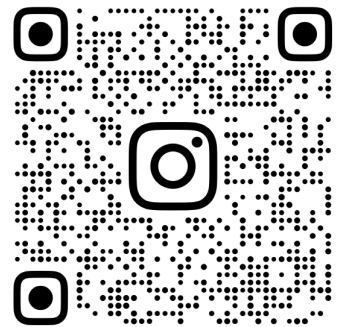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는 일요일에 한 달에 두 번, 반드시 문을 닫게 되어 있었다.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유도해 재래시장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재래시장 대신 온라인을 활용했다. 이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효과가 없게 되었다.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대책이 시급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마트 휴업일은 평일로 바꾸는 곳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온라인 유통업체만 배불렀다는 여론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트 휴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시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매출을 분석해봤더니 마트 주변 전통시장의 매출이 전년에 비해 35% 늘었다. 마트가 문을 연 일요일에 주변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결과다. 마트에서 장을 보되 가격이 저렴한 야채나 과일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다. 온라인 유통채널의 급격한 성장에 방어해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 방법을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영업하면서 주변 전통시장도 활기를 띠면서 대형마트가 해당 지역의 핵심점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와 돈의 쓰임을 위해 무조건적 규제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대화해 봐요!

1. 우리집이 주로 장보는 곳은?
2. 대형마트와 동네마트,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물의 장단점은?
3.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은?
4. 정책을 정하는 과정은?
5. 상생의 정책을 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QR 코드를 통해
기사 카드뉴스도 확인해보세요~



QR 코드를 찍거나
클릭하면 이동해요!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호기심 가득 뉴스 모음

Ai 커버곡 저작권은 누구에게?

다양한 가수의 커버곡으로 유명해진 가수 비비의 밤양갱. 놀라운 사실은 이 커버곡이 실제 유명인이 진짜 부른 것이 아니라 AI가 딥러닝을 통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이다. 유명인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학습하여 모방해 만든 AI 커버곡이 관심몰이다. 이렇다 사망한 유명 가수 김광석이 부르는 밤양갱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AI 커버곡의 조회수가 올라갈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이를 활용한 범죄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챗지피티 개발사 오픈AI는 사람 음성을 학습해 모방음성을 만드는 AI 도구 '보이스 엔진'을 2024년 3월에 공개했다. 이는 15초 분량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화자와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원본과 복제본 구별도 어렵다. 이런 기술로 누구의 목소리든 흉내낼 수 있다. 그런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음원의 권리가 노래하는 사람에게 인정된다. 그러나 AI가 커버한 목소리는 가수의 목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노래한 사람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이스 엔진이 이제 너무 쉽게 목소리를 복제할 경우 노래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문제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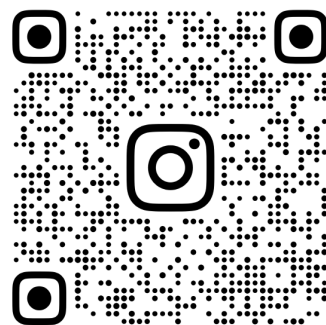


이렇게 대화해 봐요!

1. 보이스 엔진을 활용할 때 장점과 단점은?
2. 가짜 목소리를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3. 보이스 엔진 목소리 복제에 대해 저작권법을 만든다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할까?
4. 가짜 음성을 만들어 가짜 뉴스, 보이스 피싱에 활용한다면 대처방안은?

QR 코드를 통해

기사 카드뉴스도 확인해보세요~



QR 코드를 찍거나
클릭하면 이동해요!

<중등 필독 신문> 100배 활용 Workbook



호기심 가득 뉴스 모음

한국은 지금 반려돌 열풍

세븐틴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가 반려돌을 키우는 영상을 공개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반려돌 검색량이 5만 2000건에 달한다. 2024년 3월에 비교해 162% 증가한 수치다. 반려돌은 보통 500원에서 1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반려동물 등록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등록증에는 반려돌의 이름과 성별, 등록증에는 반려돌의 이름과 성별, mbti 등을 써넣을 수 있다. 그 중 온양석산의 돌을 씻는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량도 급증했다. 반려돌은 반려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움직이거나 생체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줘 인기를 끌고 있다. 고민을 돌멩이에게 털어놓으면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얻게 된다. 돌멩이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내면을 깊이 있게 돌아보게 되었다거나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반려돌이 있어 마음이 편안하다는 후기를 통해 반려돌의 매력이 검증되고 있다. 반려돌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미국의 개리달이라는 사람이 애완돌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던진데에서 이름도 유래했다. 그는 먹이를 줄 필요도, 씻겨줄 필요도 없으며 산책을 안해줘도 된다. 여행 시 집을 비웠을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서 좋으며 반려돌을 소개하기도 했다. 외신은 한국의 반려돌 열풍의 원인을 과로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인의 긴 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변하지 않는 고요함을 찾기 위해 반려돌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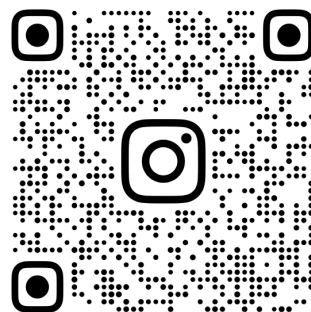


이렇게 대화해 봐요!

1. 반려돌 인기 이유에 공감하는가?
2. 반려돌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고민이 있을 때 나는 누구에게 털어놓나.
3. 반려~중 무엇을 들이고 싶은가? 그 이유는?
4.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은?
5. 앞으로 유행할 것 같은 반려산업은?

QR 코드를 통해

기사 카드뉴스도 확인해보세요~



QR 코드를 찍거나
클릭하면 이동해요!

워크북으로 재미있게 신문 놀이 해봤나요?
놀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공부 같은 기분도 들었지요.
때로는 하기 싫거나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꼭 참고 끝까지 마친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신문은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분야의 사건과 견해들이
기사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봐도 봐도 새로운 '보물 창고' 같은 곳입니다.
신문이라는 귀한 생각의 보물함을 가지고 놀면서
성장할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거기서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답을 해보면서
세상에 대한 멋진 생각과 꿈을 키워나갔으면 해요.

이제 워크북은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문 놀이는 여기서 끝내면 서운하겠죠.
앞으로 기사를 보면 이 워크북으로 했던 놀이들을 떠올려보세요.
기사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나만의 신문놀이를 만들어보세요.
그 놀이를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해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 워크북이 여러분의 창의성 발휘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시험을 못 봤다고, 발표를 못한다고, 남보다 특출한 게 없다고
자신의 가능성을 얽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입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가장 믿고 사랑하고 격려해 준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와도 다른 자신만의 빛나는 자아를 가진
멋진 존재로 성장할 거예요.
먼 훗날, 멋지게 성장한 여러분을 기대하며
그때 우리가 함께 했던 신문놀이를 기억해 주세요.

- <중등 필독 신문> 작가 이현옥, 이현주 선생님이 -



클릭해서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학탐구생활



중등필독신문



중학탐구생활



《중등 필독 신문 2》 도서 보기



《중등 필독 신문 1》 도서 보기